

안…나와? 안철수 “대선 출마 곤결론”

SBS ‘힐링 캠프’ 출연

‘양쪽 가능성 열고 판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23일 밤 SBS 예능프로그램인 ‘힐링 캠프’에 출연, “지지자들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다.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을 보이고 얼굴을 맞대 소통을 시작하면 그분들 생각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통 정치하는 분에 대한 지지와 저에 대한 지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생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를 지지한 분들이 본인들의 기대수준과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제 생각이 그분들의 기대수준에 맞을지, 제가 정말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등 3가지를 꼭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바람직한 대통령 상(像)에 대해서는 “시대적 과제인 복지·정의·평화를 이루려면 소통과 합의의 가장 중요하다”며 “소통과 합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대통령이 정찰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정치권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해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오래된 제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며 “저



아권의 대권 잠룡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3일 밤 SBS TV ‘힐링 캠프’에 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사람들의 불만과 변화의 열망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칭구 역할을 하자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당연히 야당 대권후보가 부각되고 저는 서서히 뇌물하는 수순을 밟고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총선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었다”며 “갑자기 저한테 열망이 다시 몰리는 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안 원장은 나이가 “성공 확률은 전혀 생각 안 한다”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공 가능성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은 전국민적으로 민의를 모아 막고, 비상식적인 일을 한 사람에게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빗겨갔다. 특히 그는 “굳이 정의한다면 저는 삼상파”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연이 대권으로 가는 길이나 정치적 소리는 비난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진정성이 있는지 진심인지도의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저는 답했는데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다”면서 “저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한 적이 없다. 의도가 있으면 의도를 말한다고”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유부단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사업가는 우유부단하면 성공할 수 없다”면서 “교수로서의 시간보다 경영자로서의 시간이 훨씬 길었다. 의사 결정을 빨리 치열하게 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답했다.

언론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저는 답했는데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다”면서 “저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한 적이 없다. 의도가 있으면 의도를 말한다고”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원장의 부상은 민주당에게 제애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원장의 존재감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흥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를 상승을 차단할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다음 행보…콘서트·강연 통해 대중과 접촉

지난 19일 ‘안철수의 생각’ 출간에 이어 23일 SBS TV 예능프로그램 ‘힐링 캠프’에 출연하는 등 대중정치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안 원장은 앞으로 대중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그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안 원장 측은 애초 ‘안철수의 생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 형식의 자리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책 출

간 이후 유보적인 태도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진행한 청춘콘서트와 같은 방식이나 강연을 통해 대중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소통 형태를 떠나 안 원장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경선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존재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 원장의 또 소통 방식 및 매체에 대한 접근법도 일반적인 대선주자들과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에게 실질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원장의 최종 결심과 출마 선언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안철수의 생각’ 대답자인 제정임 세명대 교수는 이날 원을 방송 라디오 ‘민총기의 세상읽기’에

출연,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 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마를 안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며 “(출마) 결심을 해놓고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여전히 안 원장의 출마 고민이 끝나지 않았음을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안철수 변수’ 안절부절

민주당, 지지를 상승·불임정당 ‘양날의 칼’

새누리당, 대선 판도 일대 변화 올까 우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안철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주 책을 출간한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SBS 예능프로그램인 ‘힐링 캠프’에 출현하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주춤했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통당은 안 원장의 상승세에 속내가 복잡하다.

안 원장의 재부상이 민주당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안 원장의 재부상이 궁극적으로 야권의 지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 원장이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중도 및 개혁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안 원장의 부상은 민주당에게 제애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원장의 존재감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흥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를 상승을 차단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도 대선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 원장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하면서 ‘불임 정당’으로 급락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안 원장의 출마를 전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안 원장이 결국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과 함께 정치적 역량이 겸증되지 않은 안 원장이 오히려 쉬운 상대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안 원장의 신비주의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안 원장 지지율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 당 차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 원장이 대선 도전을 포기한다면 야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정권 교체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안 원장의 출마가 이뤄지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이 자생력을 키워,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창출하는 시나리오가 최상”이라며 “하지만 현

실은 녹록치 않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등 여권도 안 원장의 상승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원장이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히고 민주당 등 야권과 후보 단일화 등에 나선다면 대선 정국에 물어칠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안 원장의 출마를 전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안 원장이 결국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과 함께 정치적 역량이 겸증되지 않은 안 원장이 오히려 쉬운 상대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안 원장의 신비주의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안 원장 지지율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 당 차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 원장이 대선 도전을 포기한다면 야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정권 교체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안 원장의 출마가 이뤄지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이 자생력을 키워,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창출하는 시나리오가 최상”이라며 “하지만 현

CSKorea 광주·전남

안철수 출마 서명운동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인 ‘CSKorea재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일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주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는 정남준 전 행안부 차관, 문정현 변호사, 조인식 광주지역 여성단체 관계자, 차준석 호남대 평생교육원 원장, 신현미 w성형외과 원장, 정희활 스타렉스코리아 대표이사, 손창환 공인 회계사, 박기주 조선대학교 군사학부장 등이다.

전남은 박일훈 초당대 경찰행정학 교수, 차봉근 전 전남의정회 회장, 최순주 창조산업 대표, 최형일 조선대 교수, 안철수 무안종합병원 원장 등이다. 이들은 CSKorea재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3일 창립대회를 연 CSKorea 재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앞으로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기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본부측은 현재까지 3000여명의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설날 만정

- 김종두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다

무안공항 전세기 방콕파타야

최고의 인기 방콕파타야!! 무안전세기 가족과 함께 마지막 기회 한정특가

3박4일 방콕파타야 ₩799,000~

출발일 : 8/4, 11

3박5일 방콕파타야 ₩799,000~

출발일 : 7/31, 8/7, 14

불포함 : 개인경비, 가이드 및 기사팁, 유류 할증료



일본

여행가격 전 체류경기케이터링 100% 포함!!

가는날 8/5, 8/11

가는날 8/16, 8/19

가는날 8/18, 8/22, 8/29

가는날 8/24, 8/28

가는날 8/5

가는날 8/19

가는날 8/19